

호남 제조업체 53% “내년 수출 늘어날 것”

한은 4분기 경기 모니터링… 소비·건설투자 소폭 증가
IT·석유화학·자동차 호조… 선박 불황여파 일감 부족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의 4분기 경기가 전반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제조업체 절반 이상은 올해 보다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017년 4분기 중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호남권 경기는 전반기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보험 수준이며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했다. 수요 동향을 보면 소비와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보험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주력 업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은 광주 완성차업체의 근무시간 축소와 전북 완성차업체의 사용자 판매 부진 등으로 감소했고 수출은 해외 수요 부진 등으로 줄었다.

화학제품 생산은 판매가격과 원재료 가격이 모두 상승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수출은 수출단가 상승, 글로벌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

석유정제는 생산과 수출 모두 양호한 수급여건을 보였고 지역 정유업체의 화재 사고로 인한 생산시설 일부 복구 등으로 늘었다. 철강은 생산·수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가전 생산은 무선청소기와 공기청정기 등이 증가했으나 냉장고의 판매 부진으로 전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수출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 냉장고의 실적 부진으로 소폭 감소했다.

선박 생산은 업계 불황에 따른 수주 잔량 감소로 일감 부족으로 줄었고 수출도 인도물량이 줄어들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 제조업체들은 내년 제조업 수출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의 52.5%가 수출 증가를 전망,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 17.5% 보다 많았다.

업종별로 IT와 석유화학·정제의 경우 수출 증가 예상 업체 비중이 각각 60.0%와 50.0%를 기록했으며 자동차는 응답 업체의 절반이 증가를 예상한 반면 25.0%가

‘10% 초과 감소’를 예상했다.

올해 감소세가 뚜렷했던 조선업은 수출 감소 예상 업체가 66.7%에 달했으며 모두 ‘5% 초과’ 감소로 응답했다.

또 수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쟁’(72.5%)이,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국내 경제 불확실성’(60.0%)이 지목됐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50.0%)과 ‘보호무역주의’(45.0%)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업체들은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을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와 해외수출 기지 확보 노력 강화, 선박 금융 지원 확대와 보호무역기조 완화, 기술개발 지원 등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27.34 (-13.20)	금리 (국고채 3년) 2.13% (0.00)	
↑ 코스닥 762.21 (+1.01)	↓ 환율 (USD) 1076.10원 (-3.60)	



농협 광주본부 ‘사랑의 농산물’

호연실버홈 복지센터 위문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23일 (사)한국새농민 광주시회(회장 김용안) 회원들과 광산구 호연실버홈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새농민 회원들이 직접 가꾼 농산물을 전달했다. <사진> (사)한국새농민회는 1965년부터 농협

에서 자립, 과학, 협동의 새농민 운동 3대 정신을 앞장서 실천해 농가소득증진과 영농과학화 등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상을 수상한 부모님이다. 이날 전달한 농산물은 광주 새농민회 회원들이 직접 수확한 햅쌀, 버섯, 사과, 오이, 토마토, 호박, 감, 배 등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광주은행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서구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6일 연말을 맞아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신입직원을 비롯한 지역사랑봉사단 50여명이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광주은행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을 진부모님처럼 맞이해 정성껏 준비한 소고기 백반과 함께 떡을 선물했으며, 배식봉사와 설거지, 환경정화 활동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자원봉사에 나선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우리 지역에 나눔문화 확산 및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26일 지역사랑봉사단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전남 내년 1만9000가구 분양

전국 41만7866가구…광주 1만5408가구로 8위

내년 광주지역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전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 114가 ‘2018년 민영아파트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총 41만7866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 1만5408가구, 전남은 3297가구로 총 1만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7년에 비해 광주가 831가구 늘

어난 반면 전남은 7862가구보다 4565가구나 대폭 줄어든 수치다. 또 광주는 전국의 4.5%, 전남은 전국의 0.8%를 차지한다. 물량 순위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광주는 8번째, 전남은 15번째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공급과잉, 미분양 리스크를 겪고 있는데다 대출규제, 신DTI 적용, 금리인상 등으로 수요도 위축돼 건설사들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연말 가족·연인과 호텔에서 ‘디너 파티’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뉴 이어 디너 패키지’ 출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이 연말을 맞아 ‘뉴 이어 디너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에서의 1박과 조·석식 뷔페가 포함된 ‘뉴 이어 디너 패키지’는 오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20만원(세금불사료 불포함)부터 시작된다. 일일 10객실 한정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패키지에 포함된 뉴 이어 디너 뷔페는 랍스타, 전복, 양갈비 등 그림 아이템을 무제한 제공된다. 또 연말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칠면조 로스트, 통돼지구이, 통연어 로스트 등 로스트 섹션과 부쉬드 노엘,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 진저 브래드 하우스 등 겨울테마에 맞춘 디저트 섹션도 준비돼 있다.

뷔페만 별도로 예약할 수 있으며 가격은 성인 기준 5만9000원이다. 홈페이지(Higwangju.com)나 사전 예약할 경우 15%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문의 062-610-7000. /박기용기자 pboxer@

금호타이어 ‘근로자 지위확인’ 패소

대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야”…인건비 가중 경영난 우려

금호타이어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구조조정과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심에서 회사측 상고 기각을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분리된 공간에서 일을 시키더라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사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인건비와 2018년부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합하면 당장 200여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송 당사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과 체력이 소송 결과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서진종합건설 사장에 김환진씨

(주)서진종합건설 사장에 김환진(56) 전 광주은행 부행장이 선임됐다. 신임 김 사장은 현재 서진종합건설 계열사인 동일산업 사장을 맡고 있다. 서진종합건설과 동일산업 사장을 겸임하며, 임기는 26일부터다.

김 신임 사장은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행복한 직장, 일하고 싶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수요자의 요구를 충실히 파악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